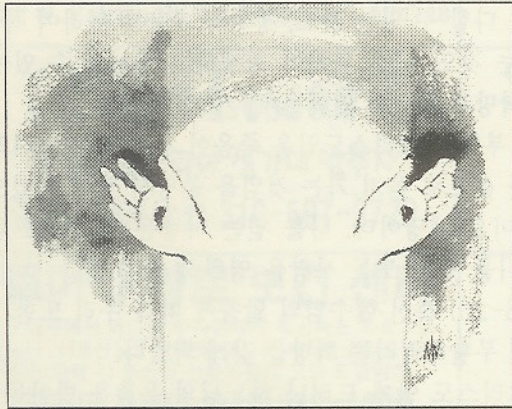


백삼위 안인성당

The 103 Saints Korean Catholic Center 2701 W. 237th St./ Torrance/ CA 90505
http://www.103skcc.org

부활 제3주일
제29권 22호(나해) 2009 · 4 · 26

[묵상]



“평화가 너희와 함께!”(루카 24,36)

사람이 죽어 장례를 치루고 매장을 했는데
그 사람이 다시 살아나 우리 앞에 나타난다면 ...
이 놀라운 사건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병을 앓다가 죽은 라자로라는 사람이 있었다.
누이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를 고쳐주기를 바랬고
사람들도 그랬지만 예수님은 일부러 눕장을 부리셨다.
죽은 지 나흘 되어 섞는 냄새가 가득 한 동굴로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분이 찾아 오셨다.
오직 믿는 자에게 하느님의 영광이 허락되니
눈앞에서 죽은 자가 봉대를 감은 채 걸어 나왔다.
얼마 전 부활이요 생명이라 하신 그분이
자신을 죄악에 내어맡기고 죽음에 무릎을 꿇었다.
그러나 그분은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다.
손과 발에 못 자국으로 구멍 뚫린 채
미혹한 제자들을 양팔의 평화로 감싸 안으며
두려움을 떨치고 일어나 세상으로 나가서
죄의 용서와 회개의 복음을 선포하고
“너희가 이 일의 증인”이라 하신다.(大)

미사

빈첸시오회 (어려운 이를 돕는 연락처) : (310)283-5879
연령회 (장례시 연락처) : (310)720-8240

수요일	저녁 미사	오후	7:30
목요일	아침 미사 (레지오) 저녁 미사	오전 오후	9:00 7:30
금요일	아침 미사	오전	8:30
토요일	성모신심 미사(첫토요일) 특전미사 (청년미사)	오전 오후	8:30 7:00
주일	아침 미사 학생미사(영어) 낮 미사	오전 오전 오전	7:30 9:30 11:00

주간 행사표

화요일	신앙학교 제4단계(종강)	오후	7:30
수요일	면담의 날 (신부님, 수녀님)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레지오 마리아 예비자 교리반	오후 오전 오후 오후	2:00 10:00 8:00 8:00
목요일	병자영성체 (1째주) 성 시간 (첫목요일) 레지오 마리아 성령 기도회 예비자 교리반	오전 저녁 미사후 오전 오후 오후	9:30 미사후 10:00 8:00 8:00
금요일	거룩한 독서 (Lectio Divina) M. E. Sharing (3째주) 울뜨레아 (4째주)	오전 오후 오후	9:30 7:00 8:00
토요일	유아세례 (4번째 토요일) 배론 청년모임 폐제기도모임 (2째주)	오후 오후 오후	6:00 5:00 8:30
주일	병자 영성체 글로리아 성가대 1째주 - 구역장/반장 회의 2째주 - 모임의 날 ● 빈첸시오회 ● 요셉회/안나회/양업회/성모회/자모회 대건부부회/원서부부회 3째주 - 행사의 날 4째주 - 사목회 가정의 날	오전 중 오전 오후 오전 오전 오후 오후 오후	9:00 1:00 9:00 1:00 1:00 1:00 1:00

※ 고해성사 : 평일미사, 토요특전미사 15분 전, 주일미사 20분 전
※ 혼배성사 : 6개월 전에 사무실에 필히 접수
※ 병자성사 긴급연락처 : 218-8432(신부님), 218-8282(수녀님)
※ 병자영성체 : 사무실로 신청

주임신부 : 박상대 마르코 (310)326-4350 Ext.103/106
전교수녀 : 구마리아네 (310)326-4350 Ext.102
평협회장 : 오세원 아타나시오 (310)327-8035
사무실 : (310)326-4350 Ext.100 Fax: (310)326-4360

토 요 특전 미사	(연)한숙이 모니카, 박순희 사비나, 김소천 마리아, 김간난, 양노엘 사제 (생)문영일 안토니오와 신혜숙 율리아, 이 마르코, 박동수 베드로와 정에 소화테레사 가정, 정해홍 요셉, 박유순 빅토리아, 박상대 마르코 사제
주 일 낮 미사	(연) 김수환 추기경, 고준희 제임스, 이현호 요한, 변세연 대건안드레아, 이금순 마리아, 김인영 베드로, 안준환 미카엘, 김소천 마리아, 윤춘의 스킨라스티카, 김정희 모니카, 이영자 마리아, 이상현 베드로, 엄은섭 도로테오 (생)이윤조 글라라, 윤종필 베네딕도, 채수환 마테오, 김대우 비오와 숙희 심포로사, 김영운 소화테레사, 박유순 빅토리아, 제63차 남가주 M.E.수강자들 구마리아네 수녀, 조옥중 사제, 박상대 마르코 사제

오늘의 전례

제 1독서 사도행전(The Acts of the Apostles)
3,13-15,17-19

화답송 ㉠주여,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전례성가 71, 부활 제3주일 나해>
㉠내 부르짖을 때 들어주소서, 내 의로우신
하느님여. 이몸이 궁하올 제 살려주소사오니,
불쌍히 여기시어 이 기도 들으소서.㉠
㉠너희는 알라. 주님은 충성된 자를 자별하게
다루시나니. 내 기도할 때이면 주께서
들어주시리라.㉠
㉠그 누가 우리에게 좋은 일 보여줄고. 이렇듯
말하는 이 여럿이오니. 주여, 당신 얼굴의 밝으신
빛을 드높이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자리에 드자마자 단잠이 깊사오니, 든든히
살게하심, 홀로 주님 덕이오이다.㉠

제 2독서 요한 1서(1 John) 2,1-5,1

복음 ㉠알렐루야.
환호송 ㉠주 예수님, 저희에게 성경을 풀이해 주소서.
저희에게 말씀하실 때 저희 마음이 타오르게
하소서.㉠
복음 루카(Luke) 24,35-48
영성체송 빵을 나눌 때, 제자들은 주 예수님을 알아보았네.
알렐루야.

오늘의 성가

	청년미사(토요특전)	낮 미사
미사곡	51-58	33-42
입당	162	164
봉헌	268	317,264
성체	418	283,287
파견	166	170

27. 우리는 영원한 삶을 믿습니다.

▶ 영원한 삶에 대한 희망

우리의 삶에서 선하고 곱고 참된 것들이 죽음으로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더 고귀하고 영원한 것으로 피어나리라는 희망과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는 평생을 땀 흘려 일할 수 있다. 아무도 보지 않는 데서 양심을 지키고 인간의 도리를 다할 수 있는 것도, 정의와 자유를 위하여 목숨을 바칠 수 있는 것도, 남을 위하여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는 것도 이러한 희망과 확신이 전제될 때 가능하다.

예수님의 부활로 그리스도인은 죽음이 결코 끝이 아니라 새롭고 영원한 삶으로 옮겨 가는 것임을 분명히 알게 되었으며,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고, 또 살아서 나를 믿는 모든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을 것이다.”(요한 11,25-26)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리라는 희망을 갖게 되었다.

죽음은 그리스도 안에 드러난 하느님의 은총을 받아들이거나 거부할 수 있는 시간인 인생에 끝을 맺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에게 죽음은 하느님 아버지에게서 왔다가 하느님께 돌아감(요한 16,28 참조), 곧 영원한 삶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자비로우시고 의로우신 하느님과 결정적으로 만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에 새로운 의미와 가치를 부여해 주셨고, 우리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삶을 살도록 해 주셨다.

▶ 사심판(私審判)

사람이 착한 일을 하면 상을 받고 악한 일을 하면 벌을 받는 것은 이 세상에서 보편적으로 통용되는 원리다. 그런데도 현실에서는 악한 사람이 잘 살고 착한 사람이 고통을 당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악한 사람은 양심의 가책으로 마음이 편하지 않을 것이고 착한 사람은 떳떳하기 때문에 오히려 마음의 평안을 누린다고 말할 수 있지만, 인간적이고 현세적 안목에서 볼 때 큰 모순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인간은 자기 행위의 대가를 이 세상에서 다 받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에 하느님의 공정한 심판대 앞에서 총결산을 해야 한다. 그때에는 육체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 한 일들이 숨김없이 드러나게 될 것이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서야 합니다. 그래서 저마다 좋은 것이든 나쁜 것이든, 이 몸으로 한 일에 따라 갚음을 받게 됩니다.”(2코린 5,10)

이렇게 우리가 죽은 다음에 하느님께 개인적으로 받는 심판을 ‘사심판’(私審判)이라 한다. 그리고 하느님의 정의롭고 공정한 판정에 따라 우리는 각각 천국과 연옥과 지옥이라는 상벌을 받을 것이다. 또한 이 심판의 기준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얼마나 사랑을 실천하였는지에 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만이 모든 행위를 가늠할 척도가 되기 때문이다.

(◆CBCK 제공 - 계속)

평화가 너희와 함께!

새순이 가냘프게 겨울의 추위를 이기고 나뭇가지에 자신의 존재를 선보이는 봄이었습니다. 저는 산속 피정의 집에서 나무를 그냥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나무는 위로 올라갈수록 줄기가 가늘어지는구나. 밑으로 내려올수록 줄기는 굵어지고 튼튼해지는 것, 이것이 자연의 법이구나. 그런데 사람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버리지 못하고 모두 갖고 올라가기 때문에 나무와 반대의 모습을 하고 있지. 그러니 바람이 불고 태풍이 오면 쉽게 무너지고 쓰러지게 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야. 자연이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유지하고 있는 것은 자신의 처지를 알고 욕심을 부리지 않기 때문이구나. 그러면 맨 위의 나뭇가지는 과연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것일까? 여리기에 작은 바람에도 쉽게 흔들리는 저 나뭇가지도 자신의 역할이 있을까? 그래, 맨 위의 가지는 방향을 알려주고 있는 거야. 태양이 떠있는 곳으로 나무를 안내하고 있는 거야. 그렇다면 저 위의 여린 듯 보이는 가지는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구나. 사람들의 공동체에서도 책임자가 하는 역할이 구성원들을 올바른 곳으로 이끌어 주고 삶의 지혜를 통해 바른결정을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 교우들이 모인 신앙공동체의 책임자도 우리를 하느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을하고 있는 거야.”

부활이 되면 언제나 교우들에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매일 매일 부활의 기쁨을 맛보고 싶으시죠?” “네!”
“그런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뭘까요?” “...”
“매일매일 죽으셔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부활할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위로 올라가면서 우리가 해야 하는 역할은 올라가는 만큼 내려놓는 것입니다. 내 손에 있는 것, 내 마음에 있는 욕심들을 내려 놓지 않고 오르면 여름 태풍이나

비바람에 뿌리까지 뽑혀 있는 그런 나무가 될 것입니다. 부활을 믿는 신앙인에게 죽는다는 것은 곧 부활의 시작입니다. 또한 그것은 자연처럼 내려놓는 것입니다. 시간이 되면 자신의 자리에서 물러서는 것도 죽는 것입니다. 아끼고 절약하여 모은 재물을 가난한 이웃을 위해 내어 놓는 것도 자신에 대해 죽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죽음 안에는 이미 부활의 싹이 움트고 있으며 부활의 삶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 복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을 바라보시며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 짧은 한 마디에 제자들은 그동안 겪었던 불안, 슬픔, 절망을 다 알고 계신 주님의 마음을 느꼈을 것입니다. 사랑한다고, 걱정했다고 말하지 않더라도 이 한 마디 말씀에 예수님의 마음이 모두 녹아 있으니 더 물을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예수님은 당신의 부활을 식사로 다시 확인시켜 주십니다. “여기에 먹을 것이 좀 있느냐?” 그러신 후 당신이 겪으셔야 했던 모든 일에 대해 성경을 통해 설명해 주십니다. 이때 주님의 한 마디 한 마디가 제자들의 가슴에 깊이 새겨졌다는 것은 너무도 확실합니다. 부활하여 자신들 앞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는 제자들의 눈에는 더 강해진 믿음과 사랑이 담겨져 있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어떤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고 있는지요? 우선 날 바라보시는 예수님의 눈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눈을 통해 “평화가 너희와 함께!”라고 인사하시는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나 또한 “주님, 전 팬앳아요. 당신으로 행복하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한 주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장광재 요아킴 신부 | 상설고해사목부

이번 주 전례 봉사자

다음 주 전례 봉사자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최태훈 아오스딩	신덕레 테레사	김정웅 요한 엄영숙 마리아
제1독서자	송민영 보나	김교복 레오	이재용 안드레아
제2독서자	민슬기 로사리아	황지영 안젤라	이혜선 안젤라
제물봉헌자			건진자들

이번 주	토요특전 (청년미사)	아침 미사	낮 미사
해설자	송민영 보나	신덕레 테레사	신종철 아브라함
제1독서자	박소영 프란체스카	김교복 레오	이민상 요한
제2독서자	서현수 율리아	김금자 테레사	박희자 마리아
제물봉헌자			토런스 북 1/2반

◆ 교무금은 제 달에, 주일헌금은 정성껏 봉헌합니다.

◆ 미사시간에 늦지 말고, 일찍 와서 묵주기도를 바칩시다.

◆ 오늘 주일 전진성사 받은 형제자매님들께 축하드립니다.

● 오늘 주일(26일) 본당 11시 미사 중에 LA 대교구 샌퍼드로 지역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으로부터 전진성사를 받은 51명의 형제 자매님들께 축하드립니다. 이 성사로 주님과의 일치는 물론, 성령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형제자매들은 교회와 세상에 더욱 적극적으로 봉사하게 됩니다. 이들이 생활로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차츰 완덕의 길로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 새 전진성사자들 : 박현희 & 박진경, 박동수 & 박정애, 윤두형 & 윤영훈, 박주현 & 신현정, 문충한 & 문지숙, 김 용 & 박문주, 이남현 & 이정아, 이강우 & 김수진, 김한진, 김영정, 김광자, 김 옥, 김병록, 김영운, 김미성, 김옥보, 김진숙, 김정엽, 김 희, 박수민, 권병연, 나경흠, 박진숙, 박진숙, 박상준, 박음전, 박수익, 백지자, 변복순, 신정열, 신현화, 이영석, 이상용, 이귀란, 이희영, 오일순, 오현수, 임재범, 윤선영, 조영우, 조희숙, 주용순, 주영애 (51명)

● 축하파티 : 낮미사 후 친교장

◆ 박상대 마르코 본당 신부님 영명축일 축하드립니다.

4월25일(토)은 성 마르코 복음사가의 축일로 본당 신부님의 영명축일입니다. 축하행사는 오늘 주일 낮미사 후, 알렉산더 살라자르 주교님을 모시고 친교장에서 전진 파티와 함께 있습니다.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합니다.

◆ 요셉회/안나회 봄철 온천관광

● 일시 : 4월28일(화),레이크 엘시노 온천장
● 출발 : 당일 오전 8시 성당 주차장에서 관광버스로 떠남.
● 문의 : 이영희 카타리나 회장 ☎(310)518-1736

◆ 성모 신심 미사 : 5월2일(토) 오전 8시30분

◆ M.E. 기금모금 음식판매

백삼위 M.E.발전을 위해 연례행사로 갖는 음식판매에 많은 협조를 바랍니다.

● 일시 : 5월2일(토) 특전미사 후, 3일(주일) 아침/학생/낮미사 후 친교장.

● 메뉴 : 각종 밀반찬(홈메이드), 빈대떡, 파전, 족발&막걸리, 갈비정식(낮미사 점심에 한함)

● 남가주M.E. 제63차첫주말에 3쌍 참가 :

♡이명렬 라파엘 & 명순 크리스티나
♡윤화경 바오로 & 경옥 실비아, ♡이호미 엘리사벳 & 홍광선

● 일정 : 5월1일(금)~3일(주일)

● 장소 : 마리아 & 요셉 피정센터(P.V.)

● 문의 : 백삼위 대표부부 최사비노 & 안젤라 ☎350-4185

● 참가부부들에게 은혜로운 첫주말이 되도록 기도합니다.

◆ 제16차 백삼위 가족 한마당 체육대회

● 5월17일(주일), 낮미사(오전 10시) 후 운동장

● 진행 : 대전회

● 구역별 팀구성 : 청팀-토런스 동, 서, 북구역
백팀-터런스 남, 하버/카슨, P.V.구역

● 식사 : 각 구역별로 준비

● 종목 : 피구, 오체미던지기, 물풍선나르기, 축구(어린이/어른) 릴레이, 짝짓기, 줄다리기

▶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이 자리에 많은 신자들의 참여를 바랍니다. 도네이션 문의 ☎(310)569-0482 오세원 사목회장

* 보다 자세한 일정은 다음 주보에 알려드리겠습니다.

◆ Virtus Facilitator 교육(한국어)

● 일시 : 5월23일(토)/24일(주일) 오후 3시~오후 8시

● 교육대상 : 본당 신부님, 수녀님, 회장단, 총무 분과장, 청소년 분과장, 주일 학교 교장, 한국학교 교장, 자모회장, 청년 회장, 대학부 대표, 주일학교 학생 대표, 사무장

● 10시간 강의로 이틀간 모두 참석해야 함

● 장소 : LA 아그네스 성당

● 문의 : 청소년 분과장 강인모 테오도시오 ☎(415)730-4585

◆ 친교자리(주일 점심나누기) 봉사담당 소공동체

● 4월26일(주일) : 본당신부님 영명축일, 전신자 국밥대접

● 5월3일(주일) : M.E. 음식판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교무금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선영	김숙경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김진숙	김택수	민경근	민찬기
	박주현	배태임	변복순	송재훈	신순철	양영관
	오세원	오현희	유희연	이경태	이근태	이명자
	이인석	이일길	이재용	이현주	장영진	정명모
	정병훈	정순석	정열모	정인식	조준제	지경수
	최영신	최이원	최현찬	한금순	한연만	한창주
	홍석인	홍숙자	황지영	황철수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5,660

미사헌금 : \$2,959

사순애금 : \$218

성전헌금	강태홍	고천용	권태만	김선영	김숙경	김원모
	김정엽	김정희	김택수	민경근	민찬기	박주현
	변복순	신순철	오세원	오현희	유희연	이경태
	이근태	이명자	이인석	이재용	이현주	장영진
	정순석	정열모	정인식	조준제	지경수	최영신
	최이원	최현찬	한금순	한연만	한창주	홍석인
	홍숙자	황지영	한길선례	영희가보라		

합계 : \$3,805

감사헌금 : 이봉림

◆ 학생 견진성사

- 대상 : 10~12학년
- 리허설 : 5월8일(금) 오후 7시30분~9시
Reflection : 5월 14일(목) 오후 7시
(견진대상자와 대부모는 3일간 모두 참석해야 합니다.)
- 견진성사 일시 : 5월15일(금) 오후 7시
- 주례 : Sartoris 주교 * 장소 : St. Margaret Mary 본당

◆ 2009년 상반기 한국학교 교사 연수(중급과정)

- 일시 : 4월29일~5월22일까지
매주 수/금요일 오후 7시~9시
- 장소 : 백삼위 본당 강당
- 교과목 : 창의적 사고력 키우기, 읽기교육, 문법, 쓰기, 글짓기, 중급반 모델수업 등
- * 문의 : 이헬레나 본당 한국학교 교장 ☎(310)347-8765

◆ Youth Conference(고등부 신앙대회)

- 일시 : 7월24일(금)~26일(주일)
- 장소 : Steubenvill, San Diego
- 대상 : 9학년~12학년
- 참가비 : \$150(Early Bird Price : 4월30일까지 \$120)
- 신청마감 : 5월31일(주일), 35명 선착순
- 문의 : 강혜원 아네스 교장 ☎(310)780-0369

남가주 소식

◆ 제18차 남가주 한인 선택주말 참가자 모집

- 일정 : 6월25일(금)~28일(주일)
- 대상 : 22세~35세 미혼 남녀 * 참가비 : \$200
- 지도 : 김두진 바오로 신부(예수고난회)
- 장소 : Mater Dolorosa Retreat Ceter
- 신청서 : 본당 사무실 / lachoiceweekend@gmail.com
- 문의 : 총대표 김현철 아우구스티노 ☎(310)987-8008

◆ 에콰도르 의료 봉사단 모집

- 일시 : 7월6일(월)~7월14일(화)
- 장소 : 에콰도르 과야킬 교구 팔마 본당과 공소
- 모집대상 : 의료진과 대학생, 일반 봉사자
- 참가비 : \$1500
- 지도 : 이영찬 신부
- 주관 : 해외 빈민구제회/가톨릭 의료봉사회
- 문의 : 정동현 마르첼리노☎(213)820-3162
김진환 안나☎(213)272-7404

이번 주 단체 모임

견진성사 축하식	낮 미사 후
----------	--------

다음 주 단체 모임

구역장 / 반장 회의	오후 1시
-------------	-------

소공동체 반모임 안내

소공동체 부장		권순길 세실리아 (310)365-2183	
차장		박혜경 레나타 (310)808-5005	
차장		권병연 리디아 (310)938-3255	
구역/장	반	반장	장소/날짜
토런스 동 유현자 안나 320-3697	1	남명자 데레사 328-0847	신현화 데레사 533-9538 4/24(금) 오후 7시30분
	2	신중철 아브라함 619-4343	김찬구 요한 701-6343 4/18(토) 오후 7시, 성당
	3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218-7824	한길선레 스킨라스티카 782-1025 4/17(금) 오후 8시, 성당
	4	정종미 클라라 373-1237	정종미 클라라 373-1237
토런스 서 김숙희 오틸리아 782-8549	1	엄혜은 도로테아 200-0512	강인모 테오도시오 780-0369 4/19(주일) 오후 5시
	2	이크리스 아가토 619-7763	이철우 야고보 373-8340 4/8(수) 오후 7시, 양산박
	3	이호미 엘리사벳 543-4953	김미성 미리암 429-6204 4/16(목) 오전 10시30분, 성당
	4	이은록 요셉 371-4645	이은록 요셉 371-4645
토런스 남 김씨니 클라라 612-8840	1	엄영숙 마리아 373-5662	오창애 안나 326-1519 4/17(금) 오후 7시30분
	2	박희자 마리아 791-3703	김율리아나 325-6982 4/15(수) 오전 10시30분, 성당
	3	강은진 켈마 214-2290	강은진 켈마 214-2290 4/17(금) 오후 7시30분, 성당
	4	이정훈 안셀모 908-8823	이정훈 안셀모 908-8823
토런스 북 이복임 엘리사벳 516-0818	1/2	박정희 마리아 800-3709	최미열 클라라 895-8624 4/17(금) 오후 7시
	3	대전희 : 거주지 역반으로 배속	대전희 반모임이었던 토런스 북3반 은 거주지역반으로 배속됩니다.
하버 카슨 박혜경 레나타 808-5005	1	정정숙 율리아 365-4722	정정숙 율리아 365-4722 4/17(금) 오후 7시
	2	박혜경 레나타 808-5005	박혜경 레나타 808-5005
	3	이영희 카타리나 518-1736	장숙환 수산나 518-1736
P. V. 이정숙 스테파니 755-8360	1	최길숙 요세피나 997-9006	유근우 알렉시오 735-3721 4/17(금) 오후 7시
	2	김숙희 유소사 544-4807	안민수 베드로 544-8908 4/17(금) 오후 7시
	3	윤은경 미카엘라 265-0856	김도완 다니엘 892-1213 4/17(금) 오후 7시
	4	송기순 엘리사벳 265-0495	프란체스카 가보라 265-0495 4/16(목) 오전 10시, 성당

〈사도 바오로의 해 특집: 바오로 서간과 신학사상〉

◇ **바오로 서간 필사 순서** : 데살로니카 1서, 데살로니카 2서, 코린토 1서, 코린토 2서, 갈라티아서, 필리피서, 필레몬서, 로마서, 에페소서, 콜로새서, 티모테오 1서, 티모테오 2서, 티토서

◎ 콜로새서 - 사람을 속이는 헛된 철학에 넘어가지 말라는 경고 (1) ◎

콜로새서는 에페소서, 필리피서, 필레몬서와 함께 옥중서간이며, 에페소서와 내용과 문체 면에 유사한 부분이 많은 서간이다. 이 두 서간은 여러 면에서 연관을 맺고 있다. 중요한 부분에서는 다수의 구절 뿐 아니라 단어까지도 일치한다. 그러나 한 편지가 다른 편지를 반복한 것이 아니라 각각 나름대로 자기의 고유한 내용을 갖고 있다. 몇 가지 공통점을 지적하면 다음과 같다. 소위 '가정윤리'라고 일컬어지는 부분에서의 대칭관계(콜로 3,18-4,1; 에페 5,21-6,9), 복음과 주님을 위해 죄수가 된 바오로가 하느님의 구원계획(경륜 혹은 신비) 속에서 갖는 역할, 머리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루시는 구원을 찬미가 형식으로 기리는 자료(콜로 1,15-20; 에페 2,14-18) 등이다. 두 편지를 자매서간이라고 부를 만큼 내용상으로도 문체상으로도 비슷하지만, 신학적 강조점에는 차이가 있어서 콜로새서는 그리스도론이, 에페소서는 교회론이 두드러진다. 그밖에도 콜로새서는 논쟁의 성격이 더 뚜렷하고 서간의 역사적, 종교적 배경이 더욱 뚜렷하고 정확하다는 점에서 에페소서와 구분된다.

◇ **바오로와 콜로새** : 콜로새는 소아시아 프리기아 주에 있는 작은 도시로, 에페소에서 동쪽으로 약 170km 떨어져 있다. 요한 묵시록에 나오는 일곱 교회에 속하는 라오디케이아 및 히에라폴리스와는 이웃해 있던 작은 상업 도시였다. 사도 바오로는 콜로새에 교회를 세우지 않았으며, 3차에 걸쳐 선교 여행 중에도 콜로새를 직접 방문하지는 않았다. 그렇다면 콜로새에는 어떻게 복음이 전해졌을까? 학자들은 콜로새서에 나오는 구절(1,7; 4,13)을 토대로 에파프라스가 콜로새에 복음을 전했을 것이라고 본다. 에파프라스는 바오로가 옥에 갇혔을 때 함께 고초를 겪은(필레 1,23 참조) 바오로의 든든한 협력자였는데, 고향 또한 콜로새여서 콜로새에 사는 이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데 적격이었을 것이다. 에파프라스는 콜로새뿐 아니라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들에 속하는 인근 라오디케이아와 히에라폴리스에서도 복음을 전하는 일에 힘을 쏟았다.

◇ **집필 배경** : 바오로는 콜로새 공동체를 세운 에파프라스에게서 콜로새 신자들이 위기에 처해 있다는 소식을 듣는다. 그것은 콜로새 공동체가 이단 사상에 현혹되고 있었다는 말이다. 이 이단은 그리스도교 신앙과 유대교 및 그리스 철학이 혼재된 상태로 드러나는데 바오로는 이를 "철학이나 헛된 속임수"라고 규정하면서 여기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고 경고한다. 예를 들면 그리스도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거나 할례를 받아야 한다거나, 안식일 규정이나 음식 규정을 지켜야 한다거나, 육신의 고행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 등이다. 이런 이단에 맞서 바오로는 콜로새 신자들에게 그리스도교 신앙의 참다운 가르침을 제시하고자 이 편지를 썼다. 그리고 바오로는 이 편지를 라오디케이아 교회에서도 읽도록 권고하는 것으로 보아(4,16 참조) 당시 이런 이단 사상이 콜로새 교회만이 아니라 인근 다른 지역 교회에도 침투해 있었다고 추정할 수 있다.

◇ **집필 시기와 장소** : 집필 시기와 장소는 바오로 사도가 이 편지를 직접 썼느냐 하는 문제와 연결된다. 이와 관련해 학자들의 의견을 종합하면 크게 세 가지로 나뉜다. 첫째는 바오로 사도의 친저로 보는 견해인데, 이에 따르면 콜로새서는 에페소서와 필레몬서, 필리피서와 함께 바오로 사도가 말년에, 곧 로마에서 첫 번째 감옥 생활을 할 중 쓴 서간이라는 것이다. 그 시기는 61~63년쯤이다. 둘째는 바오로의 친저로 보면서도 바오로 사도 생애 말년이 아니라 3차 선교 여행 때 에페소에서 지낼 때에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집필했다는 주장이다. 그렇다면 집필 시기는 50년대 중반쯤이 된다. 셋째는 가장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의견인데 바오로 사후에 바오로의 사상을 이어받은 제자가 콜로새 공동체의 문제를 보고 바오로 사도의 이름을 빌어 편지를 썼다는 것이다. 이 주장은 콜로새서에 나오는 신학적 사상들이 바오로 사도 이후 1세기 말의 흐름과 비슷하다는 측면에서 최근 들어 더욱 설득력을 지닌다. 그렇지만 이 경우에도 집필 시기가 빠르면 70년에서 늦게는 80~90년까지로 추정된다.

[◆평화신문 이창훈 기자]